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전라남도 화순 지역 주민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김대봉¹ · 김학희¹ · 김미혜² · 손은주³ · 국신희⁴ · 한부경⁴ · 조병제⁴ · 최혜영⁵ · 임효순⁶
박진균⁶ · 공경엽⁷ · 임현우⁸ · 이원철⁸ · 추성실⁹ · 정수영¹⁰ · 강형근⁶ · 오기근³

¹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²김미혜 유클리닉, ³연세의대 영상의학과, ⁴성균관의대 영상의학과,
⁵이화대의대 영상의학과, ⁶전남의대 영상의학과, ⁷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진단병리과,
⁸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⁹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¹⁰한림의대 영상의학과

목적: 유방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조기발견을 위한 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유방암 선별검진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저자들은 설문지를 통하여 전라남도 화순 지역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선별유방촬영술 참여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지역주민을 위한 조기 유방암 무료검진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라남도 화순 지역 여성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연령은 22 - 71세 (평균나이=48세)로 40세 이상이 79.4% (n=104명)이었다. 설문지를 통해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유방암에 대한 검진 (유방자가검진 및 선별유방촬영술)의 시행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결과: 유방암에 대한 관심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고, 유방자가검진도 40세 이상의 여성들 (65.4%)이 39세 이하 여성들 (18.5%)보다 많이 시행하였다. 대다수 여성에서 유방암에 대한 지식은 낮았으며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국립암센터 및 한국유방암학회의 권고안에 따른 선별유방촬영술의 수검율은 36.5%였다.

결론: 본 조사는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해 유방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

서 론

최근 국내 유방암발생은 급격히 증가해서 2001년에 우리나라 여성에서 발생한 암 중에 16.1%로 여성암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02년에도 16.8%로 1위를 기록했다 (1, 2). 이에 정부는 1999년부터 위, 유방, 자궁경부암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간암을, 그리고 2004년에는 대장암을 추가하여 5대암 검진체계를 확립하였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유방암에 대한 교육과 조기발견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유방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확실히 감소시킬

통신저자 : 김 학 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138 - 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 - 1
Tel. (02) 3010 - 4390, Fax. (02) 479 - 0090
E - mail: hhhkim@amc.seoul.kr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행태를 아는 것은 유방암 선별검진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저자들은 2004년 11월 제2차 대한유방검진학회 기간에 전라남도 화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유방암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에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조기검진 수검 시행여부를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11월 13일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대한유방검진학회가 개최되었다. 학회 개최 1주일 전 지역주민에게 유방암 무료검진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당일 학회장에서 참석자들은 유방암에 대한 설문지를 한 부씩 작성한 후 무료 유방강좌를 들었다. 이들 중 40세 이상이고 선별 유방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무료로 유방촬영을 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여성 131명이 설문지 작성을 하였다. 참여 여성들의 나이는 22세에서 71세로 평균나이는 48세이었으며 전체 참여 여성 중 40세 이상이 104명(79.4%)이었다.

설문지는 참여자의 나이, 유방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수검에 대한 동기, 장애, 그리고 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유방암 지식을 묻는 문항은 5개였으며 3문항 이상을 맞추었을 때를 보통이상으로 정의했다. 국립암센터 및 한국유방암학회 (3) 권고안인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그리고 4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 촬영술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기준으로 하여 유방자가진단과 유방촬영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Fisher's exact test와 t-test를 사용했다.

결 과

조사대상인 화순지역 여성들의 생애 선별유방촬영술은 70명(53.4%)이 받았으며 유방촬영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정기 검진 30명(42.9%)이었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14명(20.0%), 주위 사람의 권유 8명(11.4%), 유방에 증상이 있어서 8명(11.4%), 언론매체의 홍보 5명(7.1%), 그리고 기타 5명(7.1%) 순이었다.

전체 여성에서 유방암 지식에 관한 문항 5개중 모두 틀린 경우는 24명(18.3%), 1개를 맞춘 경우는 50명(38.2%), 2개는 42명(32.1%), 3개는 12명(9.2%), 4개는 3명(2.1%)이었고 모두 맞춘 여성은 없었다. 39세 이하의 여성에서 유방암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 모두 틀린 경우는 6명(22.2%), 1개를 맞춘 경우는 7명(25.9%), 2개는 10명(37.0%), 3개 이상을 맞춘 경우는 4명(14.8%)이었다.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3개 이상을 맞춘 경우는 11명(10.2%)이었다. 39세 이하 여성은 평균 1.52개(표준편차; 1.16)를 맞추었고 40세 이상의 여성은 평균 1.36개(표준편차; 0.91)를 맞추었으며 두 집단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437$).

유방자가검진은 전체 여성 중 73명(55.7%)에서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는데 40세 이상의 여성들에서는 65.4%로 40세 미만의 여성들에서의 18.5%보다 유

Table 1. 설문지 조사 결과

	39세 미만 (n=27)	40세 이상 (n=104)	총 (n=131)
검진행동			
자가검진	18.5% (5)	65.4% (68)	55.7% (73)
유방촬영	22.2% (6)	61.5% (64)	53.4% (70)
유방촬영 (권고안*)		36.5% (38)	
장벽			
귀찮아서	7.4% (2)	1.9% (2)	3.1% (4)
시간이 없어서	18.5% (5)	9.6% (10)	11.5% (15)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18.5% (5)	5.8% (6)	8.4% (11)
어디가서 검사해야하는 줄 몰라서	3.7% (1)	2.9% (3)	3.1% (4)
유방암으로 진단될까봐 두려워서	11.1% (3)	11.5% (12)	11.5% (15)
기타	25.9% (7)	15.4% (16)	16.0% (21)
무응답	14.9% (4)	52.9% (55)	45.0% (59)

* 국립암센터 및 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자가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40세 이상의 여성은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 촬영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함을 권고한다.

방자가검진율이 높았다 ($p=0.0001$). 생애 한번이라도 유방촬영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40세 이상의 여성들이 61.5%로 40세 미만의 여성들 22.2%보다 많이 시행하였다 ($p=0.0004$). 그러나 40대 이상에서 최근 1-2년 내에 시행한 사람은 36.5%였다 (Table 1).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수검의 장애를 묻는 질문에는 무응답(45.0%)과 기타(16.0%)가 많이 나왔고 40대 이상에서 52.9%였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15명(11.5%), 유방암으로 진단될까봐 두려워서 15명(11.5%),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11명(8.4%), 귀찮아서 4명(3.1%), 그리고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는 줄 몰라서 4명(3.1%)으로 조사되었다.

고 찰

서구에서는 여성암 중 유방암의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원인은 폐암 다음으로 높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방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4)에는 여성암 중 3위로 보고되었으나 2000년 (5)에는 여성암 중 15.1%로 2위, 2001년 (1)에는 16.1%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 (2)에도 16.8%로 1위를 이어갔다.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과 예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검진을 원하는 여성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각 국가 별로 유방암 조기검진 권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 (6)에서는 건강한 여성에서 조기유방암 진단을 위해 20-30대는 임상유방진찰을 3년마다 받고, 40대부터는 검진유방촬영을 해마다 할 것을 권고하며 20대부터 유방자가진찰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암센터 및 한국유방암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자가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40세 이상의 여성은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 촬영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함을 권고한다 (3).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방검진을 받고 있는 여성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방검진 수검율이 조사된 적은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에 따르면 1995년에 1년간 유방검진 수검율은 6.1%였다. 이원철 등 (8)이 1997년 의정부 지역을 대상으로 일생 중에 한번이라도 해당 암 조기검진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유방검진의 생애 수검율은 21.6%였다. 이 두 개의 보고에 비해 본 설문지 조사에서는 유방검진 수검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본 조사에서 연구대상자 선정에 유방암학회기간 동안에 홍보를 통하여 유방암 무료

검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유방암검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으로 선택편의에 의해 수검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40대 이상에서 국립암센터 및 대한유방암학회의 권고안에 따라 최근 1-2년 이내의 유방촬영율은 미국 내의 한국여성이나 다른 아시아민족보다 비슷하거나 낮게 나왔다 (9-11).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여성들에게 조기유방암검진 홍보와 교육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유근영 등 (12)의 보고에서 우리나라가 서구세계와 달리 유방암 환자에서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대 여성부터 조기유방암검진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좀 더 힘써야겠다.

본 설문에 참여한 여성은 40대 이상이 39세 이하 여성들 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이는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유방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두 연령 군에서 유방암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 중 3개 이상을 맞춘 경우는 10%대로 낮았다. Sadler (11) 등은 유방암에 대한 지식부족이 낮은 유방자가검진율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 본 설문 조사에서도 39세 이하의 여성에서 낮은 유방암지식은 유방자가검진율이 낮은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0대 이상에서 유방자가검진과 유방촬영이 39세 이하보다 높게 나온 것은 유방지식은 낮지만 조기유방암검진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으로 추측된다.

본 설문지에서 조기유방암검진에 대한 장애 중에 무응답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구체적인 항목에서 암으로 진단될까봐 무서워서라는 항목과 시간이 없어서라는 항목의 비중이 크게 나왔는데 이는 여성들이 병원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직장이나 가사 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자신의 건강에 쓰는 것보다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대상 여성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택편의가 존재한다. 무작위 표본으로 조사되었다면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수검율이 더 낮게 나왔을 것이다. 또한 기본정보로써 참여여성들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지역사회 여건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추가된 대규모 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조사 및 제 2차 유방검진학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강형근 원장님을 비롯한 영상의학과

의국원 여러분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한유방검진학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한국중암암등록본부. 한국중암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1.1-2001.12). 보건복지부 2003.2
2. 한국중암암등록본부. 한국중암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2.1-2002.12). 보건복지부 2003.12
3. 제1회 유방암 조기검진 지침개발 심포지움. 주관: 국립암센터, 한국유방암학회 2001
4. 한국인 암등록 조사자료 분석보고서 (1993.1-1993.12). 대한민국보건복지부 1995.3
5. 한국중암암등록본부. 한국중암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0.1-2001.12). 보건복지부 2002.3
6. American Cancer Society. ACS Guidelines for Early Breast Cancer Detection. Available at: <http://www.cancer.org> Accessed Apr 5,

- 2005
7. 남정자, 최정수, 김봉정, 주훈배. 한국인의 보건 의식 행태-1995년도 국민보건 및 보건 의식 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1995
8. 이원철, 노운영, 김영복, 박용문, 맹광호. 제 25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일반연제 32: 의정부지역 암 조기검진 현황 및 관련 특성 분석.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초록집. 1999
9. Sadler GR, Dhanjal SK, Shah NB, Shah RB, Ko C, Anghel M, Harshburger R. Asian Indian women: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breast cancer early detection. Public Health Nurs. 2001 Sep-Oct; 18(5):357-63
10. Ko CM, Sadler GR, Ryujin L, Dong A. Filipina American women's breast cancer knowledge, attitudes, and screening behaviors. BMC Public Health. 2003 Aug 15;3(1):27
11. Sadler GR, Ryujin LT, Ko CM, Nguyen E. Korean women: breast cancer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BMC Public Health. 2001;1(1):7. Epub 2001 Aug 13
12. 유근영, 노동영, 최국진. 한국인 유암 발생의 역학적 특징. 한국역학회지 1995;17: 30-47

Evaluation of Women'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s for Breast Cancer in Hwasun-gun JeollaNam-do by Survey

Dae-Bong Kim, M.D.¹, Hak Hee Kim, M.D.¹, Mi Hye Kim, M.D.², Eun Ju Son, M.D.³, Sin Ho Kook, M.D.⁴,
Boo Kyung Han, M.D.⁴, Byung Jae Cho, M.D.⁴, Hye Young Choi, M.D.⁵, Hyo Soon Lim, M.D.⁶,
Jin Gyoong Park, M.D.⁶, Gyung Yub Gong, M.D.⁷, Hyeon Woo Yim, M.D.⁸, Won Chul Lee, M.D.⁸,
Sung Sil Choo, Ph.D.⁹, Soo Young Chung, M.D.¹⁰, Heoung Keun Kang, M.D.⁶, Ki Keun Oh, M.D.³

¹Department of Radi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²Kim Mi Hye Breast Clinic

³Department of Radiology, Yonsei University

⁴Department of Radi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⁵Department of Radiology, Ewha Womens University

⁶Department of Radi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⁷Department of Path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⁸Department of Epidemi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⁹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Yonsei University

¹⁰Department of Radiology, Hallym University

Purpose: Because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breast cancer could decrease cancer death rate, it is important to know women's knowledge and concern for breast cancer to plan breast cancer screening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ion of women's knowledge and screening behaviors for breast cancer in Hwasun-gun JeollaNam-do by survey.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131 inhabitant women, who participated voluntarily in free screening program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heir ages ranged from 22 to 71 years (mean age; 48 years). Participants above 40 years were 79.4% (n=104). We evaluated breast cancer knowledge and screening behaviors (breast self examination and screening mammography) by survey.

Results: As participants were older, they had more concern about breast cancer. Adherence to breast self examination is higher in aged 40 years and older (65.4%) than aged 39 years and younger (18.5%). Insufficient breast cancer knowledge was reported in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regardless age. Of 104 women aged 40 years and older, 36.5% women had been performed mammography according to recommended screening guidelines by National Cancer Center and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acti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are essential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his study may be applied to plan and develop screening program.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